

몸, 돈, 사랑에 관하여

강사 _고미숙 작가

일시 _2015년 11월 24일(화)

14:00 ~ 16:00

장소 _서구청 지하대회의실

사전신청 문의

서구청 인재육성과 평생학습팀 T.032-560-5913~4

* 학교, 평생학습기관에서는 단체로 신청 바람

사전 행사 20분 전에 참석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 고전평론가
- 인문의역학연구소 감이당 연구원
- 연구공간 수유 너머 연구원
- 코넬대학교 초빙교수

저서

「낭송의 달인 호모 큐라스」
「돈의 달인 호모 커뮤니티스」
「몸과 인문학」 외 다수

강의내용

11월 아카데미에서는 고미숙 작가와 함께 인문학이 주목하는 3가지 키워드,
몸, 돈, 사랑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01 몸이란 무엇인가요?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우리는 왜 아플까요? 우울증이 유행병처럼 번진 현대인의 삶을 관찰하며 고미숙 작가는 '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몸이야말로 '삶의 구체적 현장이자 유일한 리얼리티'라 여기고,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몸'과 결부시켜 바라봅니다.

02 영원한 사랑이 있나요?

사랑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거치는 통과역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남녀가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욕망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03 얼마를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화폐는 매개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본은 무조건 증식이다. 멈추지 않고 달리지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